

전북농촌관광 활성화 견인

도, 전북형 거점마을 조성... 사람찾는 농촌 실현 도시민들에게 특색있는 먹거리·즐길거리 제공

전북도는 삼라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농촌관광 거점마을 12개소를 조성 중이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사업은 대규모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근마을과 연계, 대규모 숙박, 식사, 체험, 세미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 5월말까지 전주 원색장마을을 시작으로 7개소(전주 원색장마을, 익산 산들강릉포마을, 완주 오복마을, 진안 외사원마을, 무주 무풍송지마을, 고창 강선달마을, 부안 청호수마을)가 완공되었고,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마무리 중인 마을이 1개소(김제 벽골제마을), 공사가 진행중인 마을이 4개소(정읍 사교마을, 남원 전전동편제마을, 장수 용신마을, 순창 피노마을)로 금년도 내 12개소 모두 차질없이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 원색장마을은 색장동에 위치한 고개로 고개의 양쪽에 마치 담장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막은담이라 불렀다. 색장은 조선시대 일종의 군사시설로 도둑이나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울타리를 의미하며, 입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침범할 때 이 고개에다 허수아비를 세워서 적을 막은 적이 있어서 막은담이라 칭했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익산 산들강릉포마을은 '13년 처음

도입된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에서 전 부문 1등급(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을 받은 우수마을(으뜸촌)로 금강을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즐길거리로는 계절을 맞은 감자, 블루베리를 수확하여 맛있는 감자전과 블루베리 호떡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금강을 따라 달려 보기도 하고, 눈에 물을 대는 농수로에서 우렁이 등을 잡으며 수생태계를 관찰하는 자연학습도 가능하다.

완주 오복마을도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으뜸촌으로 선정된 마을로 경천권역의 중심이며 인근에 1만 2천여 평의 편백나무 숲과 1급수의 구룡천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넓은 대지에 지어진 깔끔한 시설(숙박, 수영장 등)과 잔디운동장이 유난히 돋보인다.

진안 외사원마을은 예로부터 꿀짜기가 많아 '시암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역으로 '태양'이 명산인 마이산을 비껴간다고 해서 비질사(畝) 별 양(陽)을 써서 '시암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이산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예전에는 금강 발원지로 불렸고, 마을 뒤 사암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관계시설이 좋고 마을 앞에는 '진안역사박물관'과 '홍삼스파'가 자리잡고 있다.

무주 무풍송지마을은 한국의 알프스 무주 구천동~덕유산 국립공원을 배

경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덕유산 향적봉, 머루와인동굴,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는 조선시대 10승지 중의 한 곳으로 황토 옥·백반석 펜션에서 편히 쉬다 가기 좋은 마을이다.

고창 강선달마을은 바로 인근에 지리적으로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오토캠핑장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고창의 자랑거리 구시포 해수욕장과 와인글라스 형태의 아름다운 구시포항이 있다. 주말이면 가족단위 체험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는 상하농원 등이 있어 체험·관광객들이 찾아오기 편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으며 사계절 언제 들러도 즐거움이 가득한 마을이다.

부안 삼현마을은 부안에서 변산으로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담수어들이 많아 낚시인들이 즐겨찾는 청호저수지가 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앞으로 농촌관광 거점마을에 많은 도시민이 다녀갈 수 있도록 마을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체험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내외 기업, 도내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거점마을간 자매결연이나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다"며 앞으로 농촌관광 거점마을에 많은 도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 국가정보포럼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 국가정보포럼에서 문화상 국회의장과 이혜훈 정보위원장, 이석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응원합니다”

메인비즈 군산포럼 성료 기업 대표 400여명 참석 특강·혁신 사례발표 등

전북도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는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19 메인비즈 군산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을 비롯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메인비즈기업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특강, 기업혁신 사례발표, 유망자 표창 및 한마음음악회를 통해 기업 간 교류의 장을 펼쳤다. 또한 22일 포럼을 시작으로 둘째날인

22일에는 군산 현지 문화체험 및 체육 활동을 하는 등 1박 2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메인비즈란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하며 전국적으로 3,700여개의 회원사가 있다. 메인비즈 협회는 2015년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2016년 강원도 평창, 2017년 충남 부여, 2018년 경남 통영 등 매년 전국 순회 형식의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지역 군산에서 개최하여 서해의 비경 선유도와 근대문화와 해양문화를 주제로 하는 근대역사박물관 탐방행사를 결함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기업대표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메인비즈 협회 김정태 회장은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로서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전기자 생산기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지역 군산에서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메인비즈 기업들의 혁신포럼이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도약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등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 통해 배워요”

전북119안전체험관, 전국 최초 구명뗏목 체험 프로그램 신설

전북소방본부는 23일 전국 유일의 물놀이안전교육장인 전북119안전체험관 물놀이안전체험장(생존수영교육장)에 전국 최초로 '구명뗏목'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명뗏목'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에 설치된 구명뗏목을 활용하여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물놀이를 즐기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명뗏목' 안전체험 프로그램 진행은 선박에 부착되어 있는 구명뗏목

을 진수(펼치기)하는 방법부터 선박 탈출, 구명뗏목 탑승, 인명구조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체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사고 발생 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2015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물놀이안전체험장은 매년 체험객이 2만명을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도 5월말 현재 예약 인원이 21,000명을 상회할 정도로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오늘 운영회의 개최

전북도는 효율적인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건축과 토목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8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20명)을 새로 위촉하고 오늘 도청에서 운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토목 등 8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라북

도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함께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며, 2021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 7대 자문단에 비해 환경 분야 전문가를 증원(1명)해 유해화학 사고 및 환경 분야 안전에 대비한다

는 계획이다. 이날 운영회의에서는 올해 자문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될 재난취약시설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도는 지난 2개월간(2~4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군별 수요조사와 시설별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취약시설 39곳을 정밀안전점검 대상 후보로 선정한다. /김진성 기자

“한국의 젊은이들, 통일을 말하다”

민주평통 전북, 전북대서 청춘평화페스티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위원장 홍종식)는 22일 전북대학교 일림의 거리와 노천극장에서 전북대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 장재혁)와 함께 '2019 청춘평화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9 청춘평화페스티벌은 시험, 학점, 취업, 직장 등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북한과 남북의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를 대학 축제 속에서 자유롭게 느껴보며, 멀게만 느껴졌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평화토론회에서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윤권 전주시 의원, 권다운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승현 심리학과 학생, 장규민 행정학과 학생은 우리에게 '통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통일은 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축제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민해 볼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전부터 일림의 거리에서는 사회대 과별 이벤트 체험부스와 함께 전북대

통일동아리 '통일나래' 학생들의 통일 스피드 퀴즈, 한반도 게임, 통일의견 조사, 판문점 포토존 사진찍기 등 학생들이 만들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2부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은 전북대 동아리 '하늘팜', '갯터', '핏앳', '엔터테인먼트', '메드'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젊음의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며 축제를 즐겼다.

2019 청춘평화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 음식오정 가수 '편치'는 완벽한 라이브로 히트곡의 무대를 선사했으며, 5월의 밤을 아름다운 청춘들의 밤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